

國民讀書運動과 公共圖書館의 役割

金 世 翊
(梨花女子大學校圖書館學科 教授)

I. 國民讀書運動의 概念

문화와 歷史를 가진 이른바 文化민족으로서 가장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방전 어느 외국 학자의 統計에 나타난 일이 있다. 韓國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 理由로서 韓國에는 읽을 만한 冊의 出版이 적다. 왜 出版이 적은가 그것은 읽을 만한 사람 즉, 讀書人口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의 악순환이다. 해방이 되고 벌써 26년이 지났어도 이와 같은 악순환은 계속 되고 있다. 그 원인의 일반적인 견해는 빈곤에 있다고 한다. 그날 그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한가롭게 책을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견에 전면적으로 동의하기를 주저한다. 이제는 국민소득이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向上된 것이 사실이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어느정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책을 읽지 않는 상황에는 별다른 變化가 없다. 또 이른바 부유층도 많아졌지만 그들이 독서와 외면하는 현상도 가난한 사람들과 별로 다른 바가 없다. 가난하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도 일면의 진리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독서부진의 전부이며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사회적 정책적인 면에서 고찰할 수 밖에 없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빈곤에서 찾고자 한다.

A. 공공도서관의 빈곤

우리나라에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놀라울 만큼 적다. 圖協 발행의 71年度 「한국도서관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63個館밖에 없다. 3,000萬의 인구를 가진 결코 작지 않은 크기의 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이 63個館 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도 전세계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빈곤이다.

B. 장서의 빈곤

도서관 자체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소장된 장서 수가 또 말이 아니다. 역시 한국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장서수는 총 583,420卷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국회도서관의 장서는 현재 2,350萬卷이라고 보고 되고 있으니 이것과 비교하면 알 일이다.

C. 도서관 활동의 빈곤

도서관학에서 Circulation이란 말은 대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념적으로 관외대출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Circulation이란 말은 館外貸出과 館內閱覽의 두가지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館外貸出은 하지 않고 館內閱覽만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館內閱覽이란 用語조차 없다.

도서관이용의 원칙은 관외대출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이 完全히 무시되고 圖書館史의으로 말하면 中世紀 以後의 고적적 상태에 머물고 있다.

물론 관외대출을 못하는 가지가지의 客觀的 與件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서수가 적다거나 도난의 우려가 있다거나 事務量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따위의 이유가 현실적으로 存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도서관정책의 빈곤에서 유래 되는 것이며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현재의 狀況에서도 등록제와 또는 보증인제도를 採擇하고 과감히 관외대출을 실시하기를 강력하게 주장 한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도서관봉사의 원리 원칙이기 때문이다.

D. 라이부라리언의 수적, 질적 부족

도서관의 3대요소는 건물과 책과 사람 즉, 도서관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는 4개대학 도서관학과와 몇개의 특수과정이 있어서 사서의 수적 부족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 이유는 첫째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서의 서울집중 현상이다. 사서가 서울은 만원이고 지방은 비어 있다. 또 하나는 사서들의 전직현상이다. 한국의 많은 사서들은 보수의 빈약과 장래에 대한 不安 때문에 전직 하거나 전직의 기회를 몇 보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 도서관의 전문적 기술과 도서관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적고 이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 가는 것 같다. 이것이 한국의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서와 등지고 있

는 현상을 초래한 이유가 전적으로 우리 도서관 측에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그 외에도 원천적인 이유가 많이 있다. 가령 매스콰이 무질서한 범람 같은 것, 또 동양 사람들이 책에 대한 근본 사상이나 태도 즉, 책은 자기가 직접 사야 하는 것이며 남에게서 빌려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전통적이며 유교적인 사고 방식이 아직도 의식구조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 말에 韋編三絕이니 讀書百遍意自通이니 五車之書 혹은 汗牛充棟같은 概念들은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發想形式이다. 또한 뿌리깊은 拜金思想 돈만 있으면 머리가 비어도 좋다는 社會潮流 같은 것도 모두 그 원인이 되고 있다.

II. 公共圖書館의 役割과 그 發展을 위한 노우트

A.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의 均衡

국민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좋은 배런스를 維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은 전통적으로 학교교육 偏重政策을 써왔다. 學校만 卒業하면 그날로 책과는 因緣을 끊어버린다. 政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考慮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형편이 학교교육조차도 維持하기에 힘겨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社會教育을 등한히 하고 국민교육적 見地에서 절름바리, 教育만을 시켜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나는 政府가 社會教育 部門에 더 적극적인 政策을 수립하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教育은 學校教育이건 社會教育이건 그것은 글자 그대로 百年大計다. 유구한 조국의 未來像을 생각할 때 目前의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國家百年의 大計의 遠大한 經綸을 가져 주기, 바란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사회교육의 센터이다. 地域社會 住民들의 自己教育活動의 基地이며 Life long study의 센터이다. 美國의 경우는 圖書館費가 全體 教育비의 1.6%에 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注目해야 할 것이다.

B. 意識과 問題

구라파를 旅行해 보면 곳곳에 카네기도서관이 많이 눈에 띈다. 이것은 美國의 부호 카네기가 돈을 벌어서 晩年에 그 돈을 모두 社會奉仕를 위해 기부했다. 그는 첫번째로 敎會를 짓는데 多額의 돈을 내 놓았다. 그 다음에는 世界 各處에 도서관을 세웠다. 그 다음에 大學研究機關에 기부했다. 이것을 보면 카네기의 思想이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카네기 뿐 아니다. 「○○도서관」이라고 쓴 현판이 붙어 있는 도서관이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카네기 같은 재벌도 없지만 記念도서관을 하나쯤 세울 재벌은 많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도서관은 이 나라에는 하나도 없다. 몇일전에 除幕式을 한 市立종로도서관의 李範界씨의 記事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意識構造에 대하

여 생각해 본 일이 있다. 국가의 財政이 어려우니 이런 독지가도 몇사람은 있을 법한데 그것이 없으니 文化的으로 寂寞感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국의 학교교육은 기형적이다. 下級學校教育은 上級學校에의 進學을 위한 道場같다.

大學은 그 수는 많아도 就職과 自己出身을 위한 手段的 機關으로 그 性格을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教育 風土는 한국의 文化를 本質的으로 發展시키기에는 許多한 疑問을 던져주고 있다. 學校教育을 本然의 姿勢로 옮겨 놓음과 同時에 이 空白要素를 메꾸기 위하여 社會教育센터에 政府는 더 많은 關心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C. 圖書館은 知識의 社會保障制度이다.

매스콰이 知識의 傳達에 있어서 便利함은 도서관이 따를 바가 아니다. 매스콰이는 現代의 寵兒다. 그러나 그러한 知識은 一時的이고 뉴우스的이다. 따라서 매스콰이는 知識傳達의 本質的 手段이 못된다.

그러나 圖書館은 文化繼承과 知識蓄積의 永續的 機關이다. 그것은 國民의 主體的 意慾에 의하여 그 寶庫의 門을 언제든지 열어주는 社會保障制度라고 말해도 조금도 異常하지 않다. 그것은 또한 敎會도 아니며 寺刹도 아니며 聖堂도 아니다. 그것은 敎會와 聖堂과 寺刹이 共存하는 多神敎의 神殿이다. 한국에서 어찌서 이 다지도 圖書館이 輕視되는가, 사람들은 이발소나 목욕탕이나 미장원의 必要性을 切感하면서도 도서관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답답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들 도서관인들은 한국문화의 異邦人인가?

D. 마을文庫

Micro Library라고 불리우는 마을文庫는 世界 特有한 한국의 特産物이다. 이것은 도서관史에도 없고 도서관 概論에도 나오지 않는 概念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存在하고 社會的 影響力을 가지고 있고 또 農漁村 文化向上에 어떤 의미로든지 공헌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는 外面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을文庫에도 문제가 許多하다. 마을文庫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할 생각은 없으나 마을文庫 發展을 위하여 두가지 善意의 意見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마을文庫가 圖書館은 아니더라도 讀書施設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存在性보다는 機能性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立場에서 볼 때 모처럼 세워진 마을文庫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뒷받침이 必要하다. 즉, 資料의 계속적인 공급이 必要하다는 말이다. 2萬個도 넘는 이 巨大한 시설을 유지 하기에는 莫大한 人力과 財力이 따라야 한다. 또 한가지 문제는 地域社會의 讀書施設로서의 구실을 다 하려면 그것은 必然的으로 圖書館의 性格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마을文庫는 地域社會의 공공도서관과의 제휴에서만 可能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나의 見解는 마을文庫가 이미 存在하고 있으니 이것을 패턴으로 삼아서 公共圖書館이 설치 되기를 바란다. 美國이나 英國에는 公共도서관의 네트워크가 形成되어 있다. 한국의 마을文庫도 네트워크가 形成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文庫는 공공도서관으로 發展될 可能性이 있다. 마을文庫는 그렇게 됨으로서 만이 도서관사적 의의와 文化史的 價値가 높지 評價될 것이다.